성경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40절 까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조금은 긴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돌아 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31.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35.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37.(없음)
38.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39.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빌립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때 생활에 대한 교훈을 받는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어떠한가, 주님을 배우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교리적인 부분을 배우는 그러한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다보면, 본인이 가지고있는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마치 구슬이 꿰어져 있는 것처럼 꿰어져 있어야 할것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단적인 교리라던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 질문에 답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생활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가르치다 보면 정작 그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며 또한 주님의 말씀의 올바른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선생님들, 때로는 형제 자매님들과 생활의 상담을 하다보면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되고 구원받은지가 참 오래 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참 부족하구나 이러한 것을 느낄때 당황스러울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중요한 말씀, 정말 기초가 되는 말씀 , 이러한 말씀들은 더욱 잘 묵상하고 그 기초를 잘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빌립의 전도는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정하고 또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이 전도한 그 내용만을 증거하는게 아니고 그 내용속에 빌립이 전도한 그 전도의 말씀이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 하고 또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전도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서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더욱 다져보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과 잘 공유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을 쭉 읽는 가운데서 주님은 즉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을 가고있었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수가 있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가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귀를 막고 눈을 막음으로 인해서 마치 주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꿩이 겨울에 추위가운데서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고, 먹이를 먹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눈길을 달려가기도 어렵고 날수도 없어서 포수를 피해 도망가다가 눈에 고개를 쳐 박고 이제는 안심이다 나 붙잡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예화를 가끔 들곤 합니다

어리석은 꿩이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꿩과같은 마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혹 가질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지 못하시겠지, 또 듣고 계시지 않겠지 그것은 착각이죠

주님은 온 천하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잡아놓으시고 시편 139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내가 하늘에 올라갈찌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찌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찌라도
10.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찌라도 또한 음부에 내 자리를 펼찌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곳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139편 1절부터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 함께 읽겟습니다

5.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은 내 전후를 두르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마치 감싸고 있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가끔 주님의 능력을 제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채로 또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치 못하다 또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편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발걸음 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앞으로 조금 넘겨보시면 시편 33편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3절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14.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15.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주님께서는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살펴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펴봐가지고 이놈 어떻게 못하는가 해서 그 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또한 그를 징계하고 심판 하실 기회만 엿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을 찾는지 누가 주님앞에 나아가고자 하는지 누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주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잃어진 영혼은 주님께서 건지시고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형제자매님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말씀 하셨습니다

지금은 기근이여도, 돈이 있으면 쌀을 수입해다가 먹으면 되죠

다른 나라에서 가져다 먹을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시편이 기록될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선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또한 풍족하게 양식이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쌀이 없으면 정말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이죠

아브라함이 기근때에 그 양식을 구하려고 나아갑니다

애굽까지도 갔죠

양식이 없으면 그 양식을 어떻게든지 구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를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장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벌써 들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안주신 것은 주님께서 헤아려 보셨을때 아직 때가 안되었기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문제로 어떤 분들은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잘 지키고자 하는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되고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염려는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빌립을 보내서 전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꾼을 보내주실지 또한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께서 그 답을 주실것이라고 우리는 믿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살펴 보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했죠

잠언 8장 17절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음이여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주님을 만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갈수 있었던 것은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셨고 그 빌립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것을 받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 주님께 간구하지 않은건 아닐까 또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러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마태복음 7장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0.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수 있는 수화기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진 사람 대단하겠죠

보통사람은 권력자와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내가 수화기만 들면 대통령이 항상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엄청난 권력자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걸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주님은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

다

주님께서는 이사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겠고 또한 나타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한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7절

6.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를 찾으라고 또한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뤄진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불러서그들에게 보내시죠

지금도 어디에선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시고자 하는데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때 주님께서는 그 핏값에대해서 우리에게 무죄하다라고 말씀 하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만날만한 때 찾으라 ,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한 우리의 간절함을 아뢸때

주님은 그 모든 아뢺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사 까지 내려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발걸음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알고 또한 그 동일한 관심으로 우리에게 관심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기억하시고 전지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셨다는 사실은 참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선민 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그는 이방인 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 전도하는 것을 혹시 쉽게 여긴다라고 하면 그건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린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닙니다 외모로 보면 어린아이들은 어린 아이일 뿐이지만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귀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누가복음에, 또한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천국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또한 권세자가 구원받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가진 돈 때문에 그가 가진 권력때문이 아니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의 교만한 마음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권세가 있다 할찌라도 돈이 많다 할찌라도 중심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묘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은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였지만 주님의 묘실을 준비할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권세잡니다 큰 권세 있는 내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권세로서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먼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권세는 있었지만 마음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그 약속을 친히 보여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누구에게든지 주님께서 나타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받은 구원의 이 모습의 모습이 얼마나 확실한가하는 것을 더욱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위나 열심을 통해서 주님앞에 나아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기도를 통해서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수 있으며 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모습과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 얼마나 같은 가를 x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분명한것인가를 더욱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1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정작 그들의 믿음이 들음이 아닌 행위에서 또한 열심으 로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참 놀랍죠 말씀은 이러한데 그것을 이야기 하면서 정작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으로다시 돌아가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0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0절

30.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31.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참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글을 잘 못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식있는 사람이였고 병거에서도 글을 읽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전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 읽어서 깨닫기 어려우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 아니면 뭐 계시로 깨달은 분안계시죠?

직통 계시 받으신분 계세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말씀 듣고 구원받으셨죠 ?

빌립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말씀을 전하고 이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대로만 전해도 사람은 대적하려고 합니다

왜그럴까요. 마귀는 참 교묘하지요. 사람의 마음가운데 미련한 것을 한번 심어주면 그게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들어도듣지 못할까요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3.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들을 귀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죠

귀가 있는데 왜 들을 귀가 있냐고 말씀하셨을까요

귀가 있어도 들을귀가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걸 들었는데 하나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귀로 들어도 마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죠

들을수 있고 볼수 있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암았느니라

그런데 그 들음은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들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찾아놓으셨으니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을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무엇을 전했는가 라는 것을 보면 주님의 말씀과 빌립이 전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빌립은 다른거 전한게 아닙니다

다른 장황한것들 전한게 아닙니다 . 핵심적인걸 전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니

복음 전한 겁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그럴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고린도 전서 15장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4절

1.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무엇이 기록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셔서 부활하신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 께서 우리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은 다른거 전한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곧 하나님 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신것.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른것 전하는게 아니죠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것 전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 말고 , 다른 걸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얻는 그 복음의 말씀

사도 베드로가 전했고, 또한 빌립이 전했고, 바울이 전했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 에게 보낸서신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 했던 내용, 다시 돌아가보면 사도행전 8장 돌아가보시면,

빌립 집사가 전도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사야 성경이였죠

왜냐면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8 장 32절 ,

32.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지금 누굴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증거하고 있죠

빌립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했고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을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했을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자리에서 듣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았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 받는데 거리낌이 없어 졌습니다

그전에는 왜 거리껴 졌을 까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침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세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들어야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듣고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죠, 또한 믿어 , 듣고 믿을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13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거죠. 복음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은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 1장 5절에 보면, 아니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우리를 예정해 놓았다라는 그 말씀만 보고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못받을 사람 다 예정해 놓았다, 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장에서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바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바로 그 우리라는 대상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거죠.

복음을 듣고 믿은사람이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교회를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우리를 예정해놓았다는건 누구를 예정해 놓았다는걸까요, 바로 교회를 예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그 몸을 예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예정해놓았다는 거죠.

 한사람 한사람을 예정해 놓았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예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참여한 사람이죠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초가 되는 그 확실한 말씀에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이제 혼돈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정해놓았나?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예정해놓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때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에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을때 구원을 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운데 나와있는 일관된 말씀과 동일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때 받았던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동일한 겁니다

구원을 서서히 단계적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사람이 많습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선 바벨탑 쌓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은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만든거죠.

차곡 차곡 쌓았습니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가면 뭐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다음에 집사되고 뭐 단계가 있어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셨죠

유다서 1장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란 말씀을 보냈을까요

왜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이 구원의 복음의 반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로 믿음의 연약한 자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들을 영영 구원과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궤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얻은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는 빌립의 전도함을 받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의 구원자,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돌아가셔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가 받은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는 더 분명하게 확인해 봅니다

어떤분들은 일주일 말씀듣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얘기 하죠.

그런분들에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교훈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주일 안듣고 , 병거 타고 가다가 그냥 구원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 오랜시간이 필요한게 아니죠

꼭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 예화를 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빌

립의 전도를 통해 받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이 전도의 모습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는 증거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들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분명히 먼저 우리가 알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받습니다

뭐 침례 받고, 침례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침례 받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것인가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와 같이, 빌립처럼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모릅니다

그럴려면 항상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때 엘리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귀가 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밝은 귀를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어디든 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걸로 부르는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준비를 해야하겠습니다.

잃어진 영혼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 이라는 것이죠

물론 로마서 1장 2절 3절4절까지의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잘 설명해 줍니다.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

로마서 1장 14절 15절

14.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복음에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빚은 졌죠

그렇데 빚을 져놓고 그 빚을 갚지 않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얌체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불러서 일꾼들을 통해 일하시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아 왔습니다

또 주님께서 불러서 복음의 현장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할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아가야 되지않겠습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돌아가 보시면,

사도행전 8:26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죠 , 30절 말씀 보실래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랬습니다. 광야로 가라 했을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

광야는,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 있겠어요, 그 길가에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우리같으면 혹시 터벅터벅 걸어가지는 않았을까요?m

아니면 그 길은 걸어서는 못가고 마차 구해서 타고 가야 겠는데요? 마차 구하러 가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되는 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핑계하고 미루고 내 사정을 먼저 이야기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형편이 이런데요 ,사정이 이런데요, 이번은 좀 어렵겠는데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쁘고 , 내가 뭔가 해야되는 그 어떠한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낮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혹시우리의 마음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런다면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5.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삯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하셨습니다

삯을 받았으면 그 삯을 받은만큼 일해야 되겠죠

우리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수할 일꾼인데, 이단들이 자기들이 추수할 일꾼이라고, 추수꾼이라고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짓 추수꾼들이 더 막 열심히 해버립니다

속상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거짓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경계만 하고 있을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두어야죠

농사는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도 그렇죠.

물고기는 언제 잡습니까, 내가 시간날 때 잡는게 아니고 물때가 맞을때 잡습니다

내가 시간날 때 아무리 가서 던져 보세요, 물고기는 다 가버렸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분들 보면요, 보통사람들이 일하러 나가는 그 시간에 잘 안가요

막 새벽에 일찍갑니다. 어떨때는 밤 늦게 갑니다. 왜그럴까요

아 그때가 물때니까, 낮에 그냥 날 좋을때 가가지고 뭐 파도안칠때 그때 가면 좋겠는데요,
아 그때는 물때 아니라니까요

언제 추수합니까, 희어져 추수할때가 될 때 곡식이 다 익을때 추수해야지요, 아무 때나 하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추수해야될때 하지 못하면 곡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때 추수할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빌립을 불러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위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광야로 달려간 그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달릴준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려면 좀 허리띠도 질끈 동여매고 뛰어갈 준비 해야 되겠죠, 마음이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달릴순 없죠,

막 자다 일어났는데 어떻게 달립니까, 일어나서 단정하게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묵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르 좀 굳게 하고, 굳은 , 굳센마음을 가지고 준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을때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겟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이 일꾼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와 같은 간증 할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참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침례 의미가 무엇인가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잘 살펴 봐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의일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도행전 8장의말씀은 개인적으로좀 자세히좀 묵상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학생들도 교회가 뭔지, 또한 올바른 믿음이 뭔지 제대로 적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고학년 중에서도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하나님의말씀 함께 배우며 교훈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를 불러서 나아가게 해주심을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예비함이 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j

주님께 항상 의지 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